

>>> 고가 사료시대 농가 경쟁력 확보 방안

전세계 위기 상황 비슷, 극복 의지가 중요

1. 지속적인 원가 상승 및 양계 산물 소비 신장 둔화

1) 사료 원료 가격의 상승

바이오 연료와 중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수요 증가로 촉발한 곡물 가격 상승은 정말 살인적이다. 2006년 말에 톤당 216달러이던 옥수수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현재 미국 시장에선 420달러를 넘어가 있다(표1 참조). 사료 원료 가격의 기준인 옥수수가 폭등하다 보니 모든 원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소맥 가격이 폭등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사료용 소맥은 구하기도 힘들게 되었다. 대두박 가격도 옥수수 못지 않게 상승하여 미국산이 293달러 하던 것이 630달러를 넘어가 있다(도표1 참조). 이런 곡물 관련 부산물의 가격도 동반 상승하였으며, 에너지 공급 원료인 옥수수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 동물성 우지 가격도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중국의 사천성의 지진 여파로 공장이 손상되어 인산 칼슘의 공급이 줄어들어 구하기도 힘들어 하고 있다. 비타민의 첨가제 가격도 6배 정도 올라갔다. 한마디로 모든 원료가 큰 폭으로 올라 혀탈해 하고 있는 상황으로 어쩌면 IMF 위기보다 더 큰, 더 장기적인 위기가 와 있으며 또 당분



안 형 진

(주)카길애그리퓨리나 전무

간 지속될 전망이다(표1 참조). 미국의 홍수로 옥수수 가격이 450달러로 폭등했다가 파종 면적이 늘어났다는 발표에 410달러로 떨어진 것을 보고 안심해야 하는 정말 어려운 시기에 있다.

2) 선임의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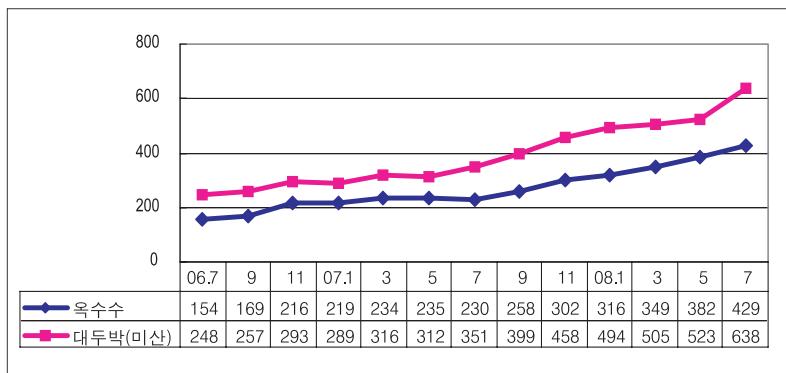
연일 석유가격 상승 발표에 전 세계, 전국이 긴장하고 있다. 140달러. 다시 약간 하락, 그러다가 다시 상승하는 등 숨막히는 전쟁이다. 여기에 가려져 곡물 가격 상승은 관심도 없는 것 같다. 어떤 사람은 200달러가 상회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올림픽 개최 후에는 수요 감소로 다소

내려갈 것이라는 희망도 있지만, 석유 가격 상승으로 49달러 하던 곡물 수송하는 배의 운임이 12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도표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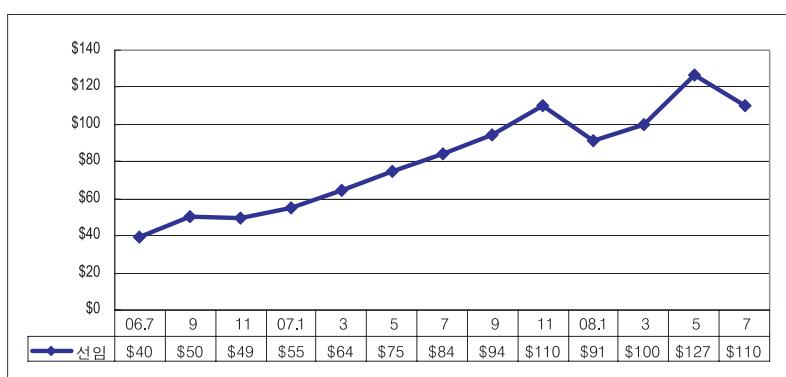
3) 불안한 환율

경기가 위축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로 시작된 사회 불안으로 달러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고 수출 증진을 도모하는 경제 정책으로 인해 환율은 올라갈 가능성이 많아 수입 원료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영향이 집결되어 배합사료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2006년 말부터 2008년 7월 현재까지 8번이나 인상되었다. 평균적으로 보면 Kg 당 사료 가격이 250~270원 또는 40~50%나 올랐다.



〈도표1〉 수입 옥수수/대두박(미산) 가격 변화(단위 : 달러)



〈도표2〉 선임가격 변화

표1. 주요 사료 원료의 가격 상승
(단위 : 달러, %)

| 주요원료 | 2006.12 | 2007.12 | 2008.6 | C/A | C/B |
|------|---------|---------|--------|-----|-----|
| | 〈A〉 | 〈B〉 | 〈C〉 | % | % |
| 옥수수 | 171 | 221 | 314 | 184 | 142 |
| 소 맥 | 159 | 230 | 245 | 154 | 107 |
| 소맥피 | 151 | 197 | 237 | 157 | 120 |
| 대두박 | 239 | 285 | 488 | 204 | 171 |
| 우 지 | 520 | 700 | 1000 | 192 | 143 |
| 인산칼슘 | 350 | 680 | 1,150 | 329 | 169 |
| 비타민 | 5,800 | 7,900 | 36,000 | 621 | 456 |

*평균 사용 기준

4) 느린 계란 닭고기 소비 증가

계란 및 닭고기는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단백질 공급원임에도 불구하고 불경기와 맞물려 소비가 크게 신장되지 않는다. 특히, 지난 4월 초부터 문제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여파로 일부 소비자들은 아직도 소비를 꺼려하고 있다.

달에 몇 번이나 가격을 올렸다느니, 일년에 14번 이상 인상했다는 등 모두들 어렵긴 비슷할 것으로 본다. 어쩌면 돈이 있어도 사료를 구입하기가 힘든 세상이 올지도 모를 것 같은 걱정이 앞서기도 한다. 지난 구정 전에 하마터면 옥수수가 없어 사료를 못 만들 뻔했던 경험이 더욱 긴장되게 한다.

2. 사료 가격 인상의 충격

1) 생산비의 지속적인 상승

생산비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사료비가 지속적으로 인상됨으로써 농장 경영의 어려움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농장 운영 자금이 최소한 사료비 인상 분 만큼 더 필요하게 된다. 계란 및 육계의 농장 판매 가격이 곧바로 상승되면 천만다행이지만, 생산비 상승이 양계 산물 가격 상승에 반영되기까지에는 대략 2년 내외가 소요되는 바,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2006년 말부터 올라간 사료 가격이 대략 250원/Kg 이라면 총 계란 생산비 중 사료비가 계란 개당 40원 정도 상승되었으나 계란 가격은 약간 올라가 있다. 육계의 경우도 사료 효율을 1.7로 본다면 사료비가 440원 정도 상승되었으나 육계 시세는 큰 변화가 없다가 최근 수요 증가와 더불어 약간 강세를 보일 뿐이다.

2) 불안한 사료 가격 및 수급 불안

8차례의 가격 인상으로 그 동안 인상된 사료 원료 가격의 인상분이 완전히 반영된 것이 아니며, 원료 가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어, 앞으로도 사료 가격은 계속 상승할 전망이라 우리를 더욱 우울하게 만든다. 다른 나라에서도 한

3) 생산성의 차이가 손익에 미치는 영향이 커짐

생산비가 낮을 때보다 높아진 경우에는 훨씬 생산성의 차이가 크게 수익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생산성의 중요성이 커지게 된다.

4) 의욕 상실

“또 올라가?” “이번이 마지막인가?” 하는 질문에 끝이 아닙니다. “아직 끝이 보이지 않으며, 계속 원료가격이 상승세입니다”라고 하면 그만 허탈해지며 의욕이 상실된다. 하지만 이런 사업 환경은 전세계가 동일한 상황이므로 그렇게 크게 상심할 것 만은 아니다. 어차피 경쟁력 싸움이니까 경쟁에서 이기면 되는 것이다.

3. 고가 사료 시대 경쟁력 향상 방안

1) 생산성 향상

사료가격이 오르면 가장 관심이 많이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료단가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냉정히 총체적으로 생각하면 역시 경쟁력 있는 생산성이다. 사료 섭취량은 줄일 수 없는가? 산란율은 더 올릴 수 없을까? 폐사를 줄이는 방안은? 질병예방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난중은 적절한가? 난질은 괜찮은가? 계사 내 환경은? 등

등 하나하나 원칙대로 점점 개선하면 생산성은 반드시 향상 될 것이다. 어려울수록 원칙대로 정면 돌파하는 것이 최선일 것이다.

2) 계란 품질 향상

소득 증가와 건강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좋은 품질의 계란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는 첨예화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므로 장인 정신을 가지고 생산하여야 한다. 또한 특수란, 친환경 양계산물 등 소비자가 안심하고 찾을 수 있는 우수한 품질의 양계산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3) 철저한 방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4월에 발생하여 큰 고통을 당했지만, 앞으로는 일년 내내 조류인플루엔자를 감시해야 한다. 무서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아니더라도 생산성 더 나아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질병이 많은 바 항상 차단, 격리, 소독, 즉 방역의 기본 원리에 충실히 하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질병은 예방이 훨씬 경제적인 바, 늘 철저히 관찰하고 이상계를 신속히 처리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친환경 양계

예전과는 다르게 이제는 양계장 운영도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어렵게 된다. 파리 발생, 냄새도 최소화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계분 처리 등 어느 하나 소홀히 하여선 안 된다.

5) 사료 혀실 방지

사료가 고가품인 바 혀실을 방지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5%의 사료 혀실을 막으면 5%의

사료비를 절약하는 것이 된다. 급이기 운영, 급이 방법 개선, 구서 등도 중요하지만, 체중을 과도하게 키우지 않는 것 또한 사료 효율을 최적화하여 사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요즘은 종전과는 달리 닭의 체중은 적으면서도 다산하며 시산이 빠르도록 많이 개량 육종되어 있는 바 목표 체중에 근접하도록 체중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체중 균일도 또한 중요하다.

6) 극복 의지 강화

사료 가격 인상, 생산비 상승, 판매 가격 미흡으로 인해 수익성 저하는 전 세계의 양계농장이 같이 겪는 고통이므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어려울수록 닭 한 번 더 관찰하고 농장 관리에 더 많은 심혈을 기울인다면 분명히 희망찬 미래가 찾아 올 것이다.

4. 맷음말

사료 가격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올라 농장을 어떻게 경영해야 하는가? 하는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된다.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비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적인 내용이지만, 생산성 향상, 방역 철저, 고품질의 양계산물 생산 등의 기본적인 경영 활동에 비장한 마음으로 몰입하여야 한다. 또한 더욱 중요한 것은 희망을 갖는 것이다. 아무리 어려운 사업 환경이 다가올지라도 극복하고야 말겠다는 의지가 강하면 반드시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어려운 상황은 전세계의 농장이 같이 겪는 고통이므로, 위축되지 말고 정신차리면 분명히 승산이 있을 것이다. 경쟁은 항상 상대적이므로 긴장하고 대처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양계**